

상록탑

내 꿈은 현모양처가 아니야

“애가 무슨 결혼하려고 대학 간 줄 알아? 너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결혼은 네가 하고 싶으면 그때 해.”

내가 엄마의 딸이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날이 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하다 아빠께서 대학 졸업 후 나의 계획을 물었다. 휴학도 하고 싶고, 세계 곳곳을 여행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자 아빠는 조심스럽게 “그래도 바로 교사 준비하고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는게 낫지 않겠어?”라고 권유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길 바라며 한 말임을 알았기에 화를 내진 못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화가 난 사람은 다름아닌 엄마였다. “승희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네 삶 다 누리고 살아. 결혼은 나중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났을 때 해도 늦지 않아.”

넉넉하지 않던 집안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고 아빠를 만나 집안일을 하며 직장을 그만 둔 우리 엄마는 한국사회에서 참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엄마는 한 번도 나에게 엄마의 꿈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그저 나와 내 동생들이 엄마의 행복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큰 굴곡이 없던 엄마의 삶에 별 생각이 없었기에 나는 그제서야 엄마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다.



김승희
문화부 부장

“

나는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

최근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답답한 사회에 화가 난 사람부터 암울한 현실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참 다양한 반응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을 관통한 감정은 아마 ‘공감’이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겪게 되는 차별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다. 아직도 25세 이상의 여자는 크리스마스 후의 케이크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아이는 여자가 키워야 한다는 무의식 속에서 워킹맘이란 단어는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 페미니즘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나를 가장 아끼는 아빠마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자를 출산과 집안일만을 위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엄마의 꿈을 알기까지 무려 2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도 나는 이화에 왔기 때문에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화가 없었다면 내가 진정한 ‘사람’이 되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겠다. 이화가 내게 준 가장 값진 가르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과 확신이다. 나는 ‘약한 여성’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교수님부터 친구까지 함께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 든든하다. 이화의 가르침처럼, 우리 엄마의 마음처럼 절대로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 것이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아직 세상에 주어진 과제는 많지만 오늘도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에 감사하다.

학생 칼럼

‘벗’ 들이 들어주지 않는 고민

본교는 재학생이나 졸업생이나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된 학교 중 하나다. 학교에 대한 사랑 때문인지, 특별한 공동체 의식 때문인지 모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얼굴을 모르던 이들은 ‘벗’이 된다. 왜인지 오프라인에서 부르기 조금 어려울 호칭인 ‘벗’은 온라인에서 모두의 이름이 된다. 그리고 벗이란 이름 안에서 온갖 고민들을 함께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족갈등부터 연애, 종교, 기숙사 생활, 성적체성에 대한 고민까지, 온라인 동아리를 방불케 할 만큼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을 열려있다. 익명의 벗이 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학교에 일이 생기면 ‘일상글 금지(학교에 관련된 내용의 게시글만 작성가능)’, ‘말머리 달기 캠페인(글 제목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학교 행사명을 붙이는 캠페인)’을 벌이며 학교의 일에 앞장서기도 한다. 이와라는 이름 안에서 만난 수많은 익명의 벗들은 이렇게 모였다 흠뻑이며 온라인에서 서로의 고민을 보듬는다. 그러나 벗들이 들어주지



박서현
커미15

“

평가 대신 따뜻한 말,
외모 강박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일

”

않는 고민이 한 가지 있다.

많은 이들이 고민하지만 스스로 고민하지 않기로, 또 서로 자제하기로 한 주제는, 바로 ‘외모스펙’이다. ‘여자 키 168에 54 켈로냐요?’ ‘저 보통인가요, 마름인가요?’ ‘얼마나 더 빼야 마름으로 갈 수 있을까요?’ 키와 몸무게에 대해 켈로냐지 묻는

이러한 글들은 누군가의 고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키, 몸무게로 결정되는 외모스펙에 대한 글이 많아질수록 우리 스스로의 외모강박은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무심코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키와 몸무게에 관한 글이 수시로 보인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댓글로 계속 보게 된다면 말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자정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외모 관련 고민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었다. 스스로에 대한 외모 고민을 자제하고, 설사 외모스펙에 관한 글이 올라온다고 해도 평가 대신 따뜻한 말로 대신 하자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모 고민글이 많이 줄었지만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댓글로 ‘벗은 벗 자체로도 소중한.’ ‘벗 지금도 충분히 예뻐’ 같은 따뜻한 말로 평가를 대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작은 변화이지만 한 명의 벗으로서 자랑스럽고 고맙다. 외모 강박이 만연한 사회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여론광장

‘갑’ 이랑 ‘을’ 이 대체 뭔데?

얼마 전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밥세 수다를 떨 기회가 있었다. 다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온 상태라 피곤했지만, 우리는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와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 가게에 진상 손님 왔는데 반말이 너무 기분 나빴다, 손님이 말도 안 되는 할인을 요구하더라, 가게 마감시간이 넘었는데도 손님이 계속 앉아서서서 난감했다는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설움들이 속속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 공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다.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관계에서 우리는 완벽한 ‘을’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지상과 뉴스부터 인터넷 기사, 광고, 심지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갑질’이라는 주제를 종종 다루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갑질’이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접미사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

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나는 20살 이후로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 프랜차이즈 홀서빙부터 시작해서 학원 보조, 편의점, 과외, 치킨집, 뽕집까지 업종도 참 다양하다.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생과 손님, 모두의 관계에서 나는 ‘을’이었다. 내가 첫 알바를 그만 둔 이유는 손님에게 성희롱 당한 게 너무 화가 나서였다. 내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무시해’였다. 술을 파는 가게에서는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고, 심지어 술을 팔지 않는 가게에는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부리는 손님들을 마주하는 것이 힘들었다. 반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화도 나지 않는 수준이다.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갑질’이 나 같은 아르바이트생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2014년 ‘땅

콩회항’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피자집, 제약회사 회장님들까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뿐만 아니다. 아파트 주민들까지 경비원 아저씨들에게 ‘갑질’을 한다. 대기업 오너들부터 서민들까지, 대체 그들이 갑질하는 심리는 무엇일까? 나는 이들이 ‘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관계는 곧 권력관계, 상하관계일 뿐인 것이다. 상대를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런 비뚤어진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생각하는 갑을 관계는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할 뿐인데 말이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모두 갑과 을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매 순간 누군가의 ‘갑’이고 ‘을’일지도 모른다. 가게에 와서 갑질하는 진상 손님도 자기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갑질 ‘당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뉴스에 나오는 ‘갑질’, 마냥 TV 속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 이야기이다. **조연이(특고15)**

사설

입결 문제, 학교가 제대로 나서야

아직까지 학벌이 자신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한 국사회에서 대학 서열은 재학생과 동문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이때 신입생들의 입시점수, 이른바 ‘입결’(입시결과)은 대학 서열을 결정짓는다. 이는 대학 경쟁력, 이미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교 입결은 그간 평가절하 돼 왔다는 게 대다수 본교생의 생각이다. 이 문제에 학생들이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입결이 ‘후러치기’ 당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본교에 입학한 재학생들의 실력과 노력까지 한 데 싸잡아 후러치기 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낮은 입결 인식으로 인해 보다 우수한 인재가 본교에 점점 지원하지 않을 경우 대학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라 우려감도 있다.

본교생들은 본교가 타대보다 입시 대응이 미약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해왔다. 이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입결 인식 정상화’가 대두됐다. 입학처는 간담회의 안건을 받아들여 ‘입학홍보 강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력체계의 내용은 ‘합격 발표장 개선’, ‘신입생 합격자 축하카드 제작’ 등이었다.

이런 노력은 해결책으로 적합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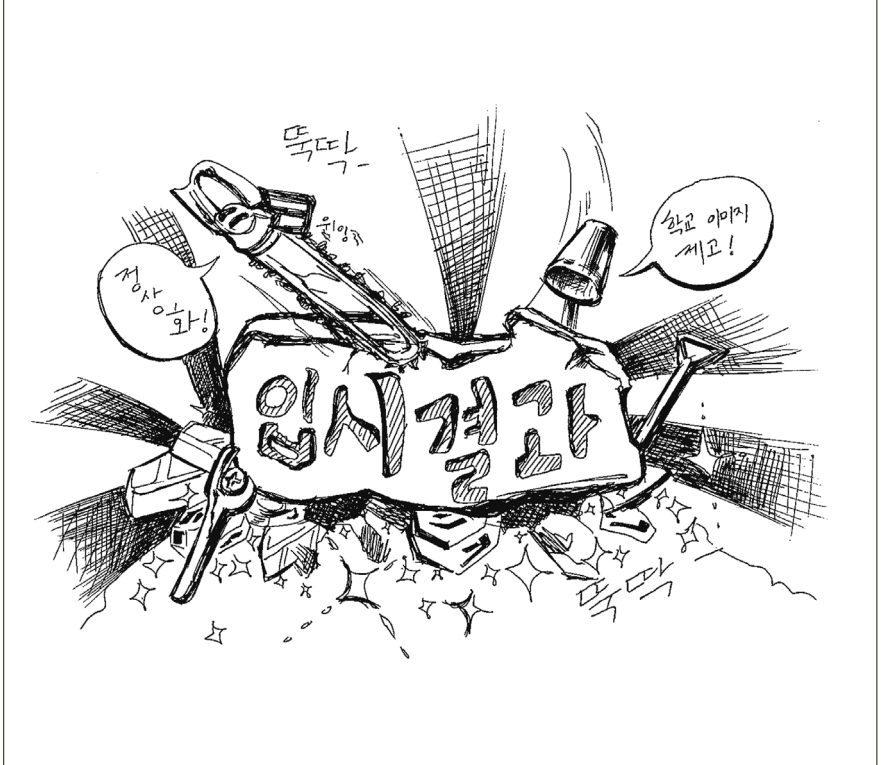
보기 어렵다. 입학처가 말한 대안은 이미 본교에 합격한 입학생을 위한 것이다. 수험생은 합격 발표장이나 합격자 축하카드가 세련됐다고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다. 학원가나 배치표에서 제시하는 입결을 보고 자신의 성적과 비교해 지원하는 것이다. 입결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학원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입시 상담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학이 전반에서 수시전형을 확대하고 있어 입결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그렇다고 이상적으로만 바라볼 순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평가관과 이미지 제고는 입결 상승 뒤에 따라올 문제다. 수험생 입장에선 아무리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자신의 성적 수준에서 좀 더 입결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본교가 ‘부모 세대’에 명문대, ‘기름 입결’이라는 말을 들을 순 없다. 이런 말은 재학생의 자부심에도 상처다. 학교 당국이 정말 입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바깥으로 움직여야 한다. 입결 향상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수준의 대안을 유지한다면 여전히 입결은 평가절하 당할 것이다.

만평

최미근 만평가 ordinarymg@hanmail.net



금주의 책



불확실한 시대의 과학 읽기 - 김동광의 지음, 서울: 공리, 2017.

많은 사람들이 보통 과학은 정답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상은 그 안에 내재한 오류나 문제점으로 인해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구역역 살처분 정책, 유전자 변형 식품, 화학물질 규제, 우울증 원인과 치료법, 핵발전소 등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전히 논쟁 중인 과학문제들을 원점에서 돌아보게 해줍니다. 주제별로 제시된 구체적인 논쟁의 이슈들은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의 시간을 갖게 하고, 과학과 사회를 관통하는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분명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확실성 자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읽기를 통해 우리 사회와 과학의 이면을 바로 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화인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2층출입기도서/5층 일반자료실 502 볼 95시

0801-0831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신과 함께: 저승편	주호민	애니박스	2011
2	토지: 박경리대하소설	박경리	나남	2002
3	동북지역 조선인 항일역사 사료집	김우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3-2004
4	해리포터와 불의 잔	Rowling, J. K.	문학수첩	2000
5	신과 함께: 신화편	주호민	애니박스	2012
6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Rowling, J. K.	문학수첩	2003
7	(정령왕) 엘케네스: 이환 판타지 장편소설 개정판	이환	드림북스: 삼양출판사	2011-
8	1Q84: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村上春樹	문학동네	2009-2010
9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 [전면개정판]	이원복	김영사	2012-2013
10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Rowling, J. K.	문학수첩	1999